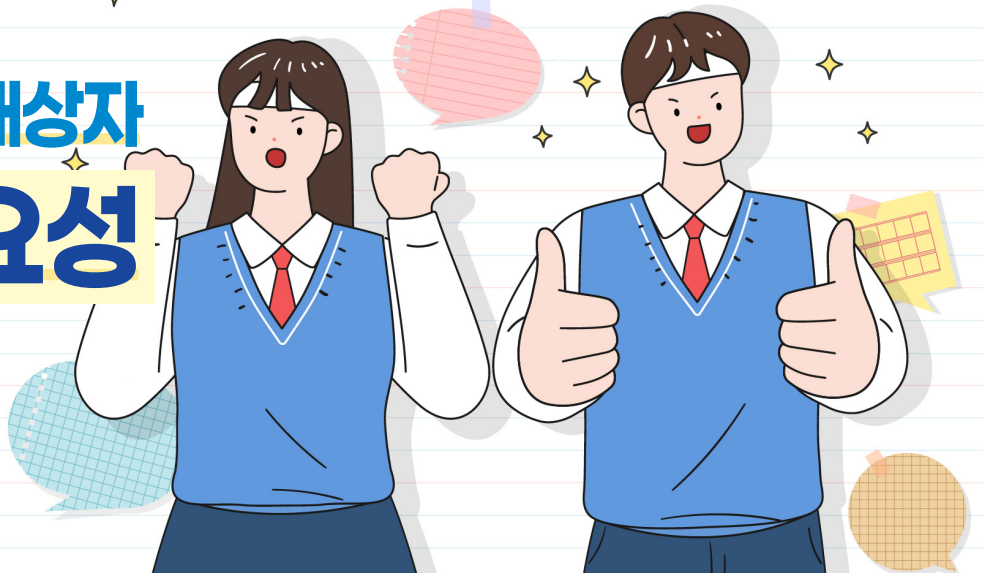




기획

대학입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의 필요성

「능력주의 사회 속 사배자에 대한 이해」



성공은 스스로가 일궈낸 것, 자기 능력이라고 믿었기에 성공한 사람은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샌델은 이러한 ‘능력주의’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전 세계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2020년 능력주의의 비판에 대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판되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능력에 따라 얻은 성과와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성공을 오직 스스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이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승자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패자 역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능력주의 개념이 현재 사회 구조에 밀바탕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소득과 가정환경 등 학생들마다의 출발점은 각자 다르다. 경제적 지원이 풍부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있는 반면 아닌 학생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출발의 차이를 두고 샌델은 두 학생을 공평히 평가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각 분야의 석학들을 총 출동시킨 E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에서 마이클 샌델의 ‘부자는 노력으로 부를 얻는가? 행운으로 부를 얻는가?’의 질문에 방청객 50명 중 19명은 노력이 부자를 만든다고 했고, 31명은 운이 부자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물론 성공을 하기까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느 국가, 어느 계층, 어느 성

별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기회의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샌델은 성공의 차이 역시 ‘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샌델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사회를 통해 잘못된 결과 발생을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트 능력주의’로 불리는 이 시스템에서 대다수 사회 구성원은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순간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의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는 자기 성취감,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 싸움에서 지게 된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다. 그러니 승리에 취해 그들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보살피 주어야 할 사람을 뜻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대학 입시에서의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취지는 교육의 평등 실현이다. 특히 고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사회통합전형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는 제도로, 전체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전형별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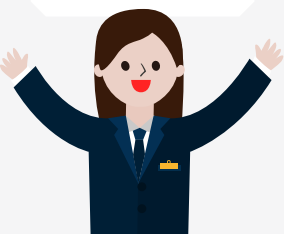
만약 이런 제도까지 사라진다면 사회 계층에서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기 힘들어진다. 우리 사회 속에선 사배자에 대한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사배자를 배려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내신 적정선에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자신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져서 나온 결과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에게 안성맞춤인 출발선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인지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현재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진정한 공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진재 기자

목차 CONTENTS



[1면 / 기획]	대학입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의 필요성
[2면 / 청소년의 눈]	[앙케이트] 청소년 화장, 실태파악 및 인식조사
[3면-1 / 문화]	효과적인 2번째 그림자, 향수
[3면-2 / 문화]	달아오르는 미술시장의 한류 열풍
[4면 / 문화]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그들의 특별한 점은?
[5면-1 / 문화]	MZ의 놀이터, 네 컷 사진관
[5면-2 / 사회]	유기동물에게 새 희망을, 유기견 입양센터
[6면-1 / 사회]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오명

[6면-2 / 사회]	10대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
[7면-1 / 사회]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한줄기의 빛, 해방
[7면-2 / 환경]	동탄 신도시의 허파, 오산천을 아시나요
[8·9면 / 환경]	청소년이 들려주는 화성시 제로웨이스트숍 이야기
[10면-1 / 경제]	다시 시작된 금리 인상
[10면-2 / 경제]	NFT가 뭐길래? 785억 원이나 돼?
[11면 / 특집]	청소년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새 미래, 화성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12면 / 홍보]	2023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모집



청소년의 눈 - 실태파악 및 인식조사 -

청소년 화장



·응답자 소개 전체 301명 (여자 206명, 남자 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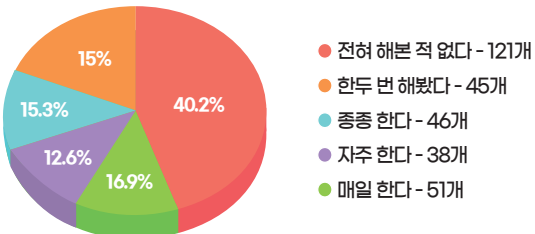
9-13세(초등학교) 43명 / 14-16세(중학생) 69명 / 17-19세(고등학교) 171명 / 20-24세(대학생) 13명 / 24세이상(성인) 5명

·응답 기간 2022년 11월 9일 ~ 2022년 11월 13일

·응답 방법 구글폼, 네이버폼(온/오프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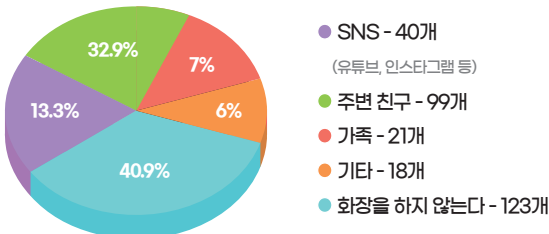
과거 불량한 아이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화장'이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에 실시된 교복 브랜드 스마트학생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화장을 하는 청소년은 58.5%, 하지 않는 청소년은 41.5%로 화장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만족'이었다. 이렇듯 많은 청소년이 화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화성시 관내 청소년들의 화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소 화장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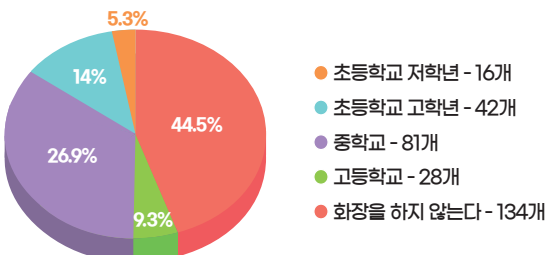
응답자의 화장 여부를 물어본 결과 화장을 해본 적 없는 청소년(40.2%)보다 화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59.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 박정연 교수팀이 초·중·고교생 537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초중고생의 60.9%는 피부·색조 화장을 한다고 나타났다. 박정연 교수는 유튜브, 스마트폰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학생 메이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화장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화장을 매일·자주 하는 학생(16.9%)은 많지 않은 것을 보아 바쁜 아침에 시간을 쪼개어 화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화장을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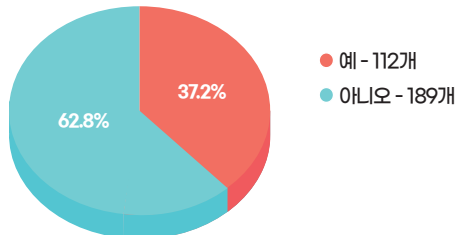
청소년이 화장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어본 결과 친구(32.9%)가 가장 높았고, SNS(13.3%)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만큼 청소년기는 친구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친구와 화장품을 사고 서로의 화장품을 빌려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화장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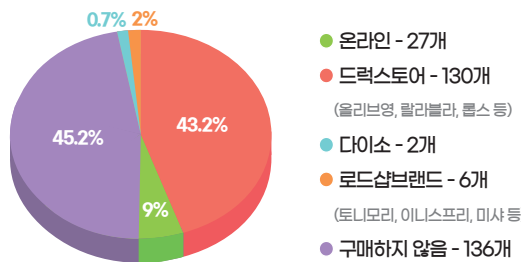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결과 보고서'에는 화장을 처음 시작한 평균 나이는 12.7세, 즉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한다. 이번 화성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화장을 시작한 시기에 관한 응답 결과, 중학교(26.9%)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14%), 고등학교(9.3%), 초등학교 저학년(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과한 화장은 성형과 같은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SNS에서 일반인이 화장 기술을 사용하여 이목구비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형 메이크업'이 높은 조회 수를 끌었다. 또한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믿기 힘든 화장 전과 후 영상이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이에 "성형 메이크업은 성형과 같은 측면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설문 응답에 따르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8%,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성형 화장도 본질은 화장일 뿐이며 성형과 같은 측면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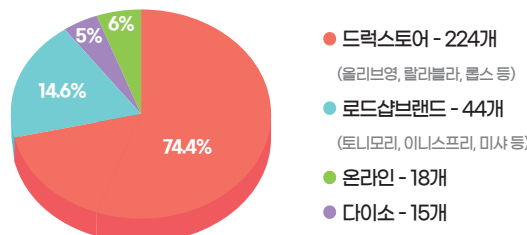
화장품을 주로 구매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화장품 구매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올리브영, 알라블라 등의 드럭 스토어가 과반수인 43.2%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학생은 9%로 나타났다. 토니모리, 이니스프리와 같은 로드숍 브랜드가 2%로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럭 스토어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로드숍은 화장품과 화장도구만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학생은 0.7%로 응답이 가장 적었다. 다이소는 낮은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해 돈이 넉넉하지 않은 10대에게 안성맞춤이지만, 화학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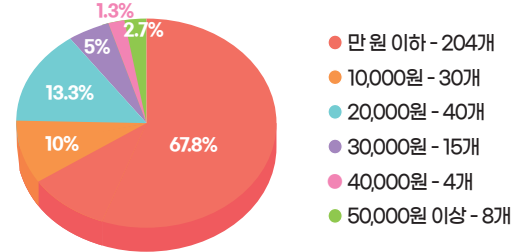
청소년이 안전성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의 화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피부 트러블 때문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피부 표면이 넓고 얇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화장품이 자주 피부에 닿으면 염증, 결막염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에 안전성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드럭 스토어(74.4%)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로드숍 브랜드(14.6%), 온라인(6%), 다이소(5%)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고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드럭 스토어와 로드숍 브랜드가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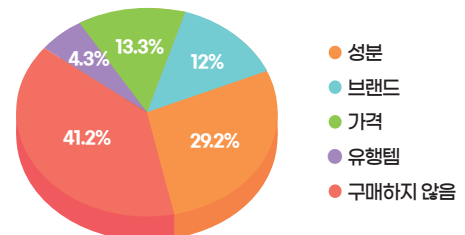
한 달에 평균 소비하는 화장품의 가격대는 얼마인가요?



한 달 용돈이 많지 않은 청소년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한 달 동안 화장품에 소비하는 금액대를 조사해 본 결과 만 원 이하가 67.8%로 가장 높았고, 2만 원대가 13.3%로 뒤를 이었다. 반면 5만 원 이상 소비한 학생은 2.7%로 가장 적었다. 화장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보아 빠듯한 용돈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장품 구매 시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하는 2030대 소비자들과 달리, 10대들은 구매에 있어 대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조사 결과,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성분(29.2%)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격(13.4%)과 브랜드(12.1%)가 비슷했다. 성분을 중요시 여기는 청소년을 인터뷰해 본 결과 화장품별 해로운 성분을 알려주는 '화해' 앱을 이용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앱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많은 10대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화장품의 유해 성분과 20가지 주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들도 사고 싶은 화장품의 성분 비교 및 또래 청소년의 구입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다.

화장은 자신의 외모 약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높여준다. 실제 화제가 되었던 웹툰 <여신강림>은 외모 콤플렉스로 왕따를 당했던 주인공이 화장을 시작하면서 예뻐지게 되어 선망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담긴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와 화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잘 나타냈다. 이처럼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청소년 화장은 익숙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호르몬과 피지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기에 잘못된 화장을 하다 보면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하는 청소년이 많음에도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은 성인용 화장품이 대부분이다. 성인용 화장품에는 자극이 강한 알코올, 향료, 인공색소 등이 들어가 있어서 10대들이 자주 사용한다면 피부 노화부터 피부암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피부에 제일 좋지만, 멈출 수 없다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피부를 지키는 건강한 화장품 사용 방법은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기, 화장품을 친구랑 같이 사용하지 않기, 클렌징 꼼꼼히 하기, 화장품 사용기한 꼭 지키기 등이 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작은 마음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장을 할 때는 올바른 사용법과 나의 피부에 맞는 성분을 잘 익혀 소중한 나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각심을 갖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아 기자

문 화



효과적인 2번째 그림자, 향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향수의 '원동력'

향수는 같은 '장미'향의 향수여도 배합물에 따라 수만 가지의 향을 만들어 낸다. 취향에 맞는 나의 향을 찾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인상의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켜 준다.

향수는 알코올에 다양한 향료를 녹여 만든 액체 화장품으로, '연기를 통한다'라는 뜻인 라틴어 'per fumum'의 어원에서 유래됐다. 기원전 5천 년경 고대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교감을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향을 내기 위해 나뭇가지를 태우거나 향나무 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발랐다. 이후 이집트 문명권을 거쳐 온 향수는 그리스, 로마 등에 전파되어 귀족계급에서 대중화됐고, 18세기부터 상품화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향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고구려의 쌍영총 고분벽화에는 머리에 향로를 이고 있는 여인이 묘사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 승려 목호자가 향료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신라시대의 귀부인들이 향낭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향수는 점차 대중화됐다.

이러한 깊은 역사를 가진 향수는 향을 내는 향료 원액과 알코올로 이루어졌고, 부향물에 따라 퍼퓸, 오드 퍼퓸, 오드 투왈렛으로 나뉜다. 우선 퍼퓸은 부향물 20~30%의 가

장 진한 농도로 향이 풍부하며 지속시간 6~7시간으로 가장 길게 유지된다. 오드 퍼퓸은 부향물이 10~20%로 지속시간 5시간 전후이며 오드 투왈렛은 부향물 5~10%, 지속시간 3~4시간으로 '향기 화장수'라고도 불린다.

향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이나 원하는 이미지를 모색해 보면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향수를 어디서 샀는지, 무슨 향인지 등 대화의 주제가 되어 사교적인 생활의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향수는 최대 300가지의 다른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2500여 가지의 향 성분이 향수 관련 소비재로 사용된다.

향수에는 두통과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표기되지 않은 기타 화학 물질 등이 함유됐다. 특히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오래 사용하면 신체에 축적돼 위험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해 성분을 꼼꼼히 표기하고, 소비자들도 가능한 한 유해 물질을 배제한 향수를 구매하도록 성분을 잘 살펴보고 구매하여야 한다. 뷰티 앱 '화해'어플에서도 향수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향수를 선택할 때는 계열별로 다양한 향을 맡아보며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향을 찾기 어렵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받아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더퍼퓸'사이트에서는 심리 테스트처럼 퍼퓸

디렉터에게 향수 추천을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의 이미지나 취향에 적합한 향을 고르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꿀 수 있게 될 것이다. 향수 구매 시에는 시향을 통해 자신의 체취와 섞였을 때 괜찮은지를 판단하고, 구매 전 유통기한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향수의 사용은 자신의 취향과 모습에 관심을 갖고 꾸밈으로써 자신감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향으로 불균형한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이나 결혼식장에서 과한 향수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쓰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수의 특성을 적합하게 활용하여 향수의 잔향이 '나'를 부각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즉 자신의 2번째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빈 기자

*어원 :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부향물 : 제품에서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

달아오르는 미술시장의 한류 열풍

세계로 뻗는 한국의 미술시장

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국 미술시장은 지난해 처음 9천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상반기에 5,329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기표현에 능한 MZ 세대의 미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불황 속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미술투자에 영향을 준 것이다. 올해 키아프는 매출액 부분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미술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성장할 MZ 세대 컬렉터의 구매 경향을 통해 작품의 다양성 확보라는 방향성을 찾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프리즈'와 '키아프' 공동 개최에 맞춰 9월 방한하여 서울의 갤러리와 미술관 10여 곳과 아트페어 부스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미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현대 미술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대세다. 서울은 21세기 예술의 수도가 될만하다"라는 말과 "이번 아트페어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예술 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니, 시장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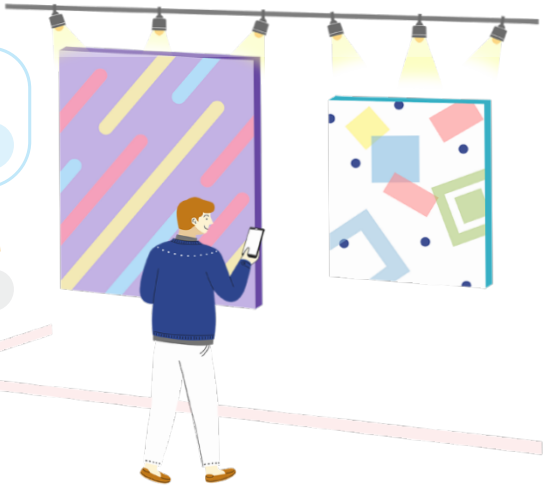
2013년 이후로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는 홍콩이었다. 하지

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초대형 미술장터를 계기로 한국 미술시장은 주가를 올리며 혼란스러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의 미술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미술계에는 K-POP이나 드라마와 같은 '한류'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국 작가가 미술시장에서 새롭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면 미술시장에서의 '한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행사들을 통해 한국 미술계는 한 단계 도약하며 더 성숙해진 미술시장으로 다가서고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작가들의 창작활동, 대중의 관심, 정부의 지원, 꾸준한 국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지민 기자



문 화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그들의 특별한 점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기타등등'을 만났다

청소년 동아리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가? 화성시 청소년이라면 학교에서 자율동아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본 경험, 6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에서 동아리가 운영하는 부스 체험을 즐긴 경험, 직접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 등이 있을 것이다.

화성시 유일 청소년수련관인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2022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는 댄스 동아리 5개, 재능기부 동아리 6개, 음악·힙합 등 총 15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댄스 동아리의 경우, 한 해 동안 어울림 마당 공연,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 공연, 가족사랑축제 등 총 11개의 공연에 참가했다.

수학·과학 재능기부 동아리 '아르키메데스, 페르마'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으며, 올해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에서는 스트링 아트와 팬 플루트 제작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그중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인 '기타등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기타등등'의 대표 박상현, 총무 김보민, 부원 김서현·양현우가 함께했다.

동아리 '기타등등'은 음악에 관심이 높은 반송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밴드 동아리로, 봄·여름·가을에 각각 청소년 버스킹을 한 바 있다. 대표 박상현 학생은 "2022년 '기타등등'은 계절별 교내 버스킹과 지역사회 축제를 포함한 6개의 무대에서 공연했으며, 앞으로 추천을 통한 메들리로 준비하고 있는 겨울 버스킹을 비롯해 다른 축제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총무 김보민 학생은 "저희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수련관 담당 선생님이 공연 기회를 찾아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갈고닦은 빛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고, 공연을 하며 사람들이 보내주는 호응을 보고 많은 점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부원 양현우 학생은 "동아리원들이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동아리 '기타등등'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로서 보통의 자율동아리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그중, 부원 김서현 학생은 수련관 소속 동아리의 장점으로 수련관 내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점과 공연 시 사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풍부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일반 자율동아리는 담당 교사와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주말 학교 이용이 제한되어 연습할 장소가 부족할 수 있지만, 수련관의 연습실을 사용한다면 연습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수련관 소속 동아리라면 공연 시 음향시설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타등등'은 음악 동아리기에 풍부한 음향 기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특별히 좋았다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연 일정과 섭외 내용 및 참여 기회를 우선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밥과 간식의 제공, 멀리 이동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편이 제



공되는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더 지원해 주면 좋을 점은 없을까? '기타등등' 동아리원 친구들은 이에 대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대의상이나 무대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엔 아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참여' 페이지에서 '청소년 동아리'를 클릭하면 소속 동아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소개되어 있다. 주요 혜택에는 지역사회 축제 및 공연 활동 우선순위 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 기회 제공, 수련관의 각종 장비 사용과 활동 확인서 발급 등이 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메일로 동아리 대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 동아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동아리의 분야는 자유이며, 화성시 청소년 14-19세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시절의 동아리 활동은 개인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지내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을 기회이다. '기타등등' 역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 무대를 하며 자신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자신이 동아리를 기획하고 있거나, 더욱 윤택한 동아리 활동을 꿈꾸고 있다면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가입해 행복한 학창 시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장예원 기자



문 화

MZ의 놀이터, 네 컷 사진관

‘나’를 사랑하는 MZ세대의 특징을 공략해

최근 인생네컷, 포토이즘, 하루필름, 포토그래이 등 여러 가지의 ‘네 컷 사진관’들이 MZ 세대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사진 찍기가 일상이 된 이들에게 여가를 즐길 때 네 컷 사진관을 가는 것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혼자 네 컷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컷 사진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컷 사진관은 2017년 첫 시작 이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대유행했던 스티커 사진에 이어 대한민국에 무인 사진관 열풍을 재유행시켰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이 바로 인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사진 찍기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즐길 거리도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규모가 큰 네 컷 사진관의 경우 머리띠, 안경, 인형 모자 등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어 이를 착용한 채로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고데기와 전신거울까지 구비되어 자유롭게 화장과 머리를 수정하며 외모를 점검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사진관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사진을 찍고 인화한 사진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생성하고 즐거움을 선물받는다. 이들은 네 컷 앨범에 사진을 넣어 추억을 간직하기도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MZ 세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놀이 문화인 것이다.

네 컷 사진관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진화하고 있다. 실제 인생네컷, 셀픽스, 포토드링크 등의 매장에서는 캐릭터 프레임, 감성 프레임 등 다양한 프레임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며 직접 프레임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기의 네 컷 사진은 상반신만 촬영했고 사진의 개수도 4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포토부스 안에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전신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의 개수와 크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문제, 기계 오작동 문제가 불거졌다. 인화된 사진을 넣어 가져가는 용도의 비닐봉지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고,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을 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홀수 인원의 경우 남는 사진 한 장을 벽에 붙이고 가기도 하는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벽에 붙여진 사진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 게시된 것이라 주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인생 네 컷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내에 붙여진 사진은 고객이 자의로 매장 내 부착하며, 일부 매장의 경우 오픈 시 오픈 이벤트로 고객께 동의 후 부착하고 있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말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네 컷 사진관은 ‘나’에게 집중하는 MZ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변화해가는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에 인기를 끌고 있다. MZ 세대의 추억을 만들고, 사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 되고 있다고 기대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아 기자



사 회

유기동물에게 새 희망을, 유기견 입양센터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이자,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반려인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천448만 명으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늘어난 반려동물 가구만큼 명암도 분명하다. 일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반려동물’이 하루아침에 ‘유기 동물’로 뒤바뀌는 사례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등록된 유기 동물만 1만 1천140여 건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370여 마리의 동물들이 가족을 잃은 셈이다. 매년 유기 동물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에 처하게 된다. 유실·유기된 동물들은 구조된 후 지자체 동물 보호소로 옮겨진다. 하지만 공고가 끝나기 무섭게 수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명단에 오른다. 보호소 입장에서조차 수용 정원은 정해져 있고, 매일 새로운 유기 동물이 입소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이 널리 알려지며 유기 동물의 재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기되는 동물의 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

화성시 마도면엔 가족을 잃은 유기 동물과 새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동행’을 이어주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가 있다. 나눔센터는 유기 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기능 수행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



실상부한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선발해 진료와 훈련 등의 관리를 거쳐 맞춤형 입양을 연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물 보호 정책, 반려동물 에티켓, 미용 등 반려동물과 사람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교육들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아시아 타임즈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현철 나눔센터장은 나눔센터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수의사, 훈련사가 상주하고 있어 이들의 질병 관리, 훈련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입양 후에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전화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도 입양 후 6개월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전화해 확인·관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카페도 따로 운영하는데 입양자들이 입양견의 근황을 알려주거나, 문의사항을 올리면 센터에서 답변해 주고 있다.”라며 나눔센터만의 특별함을 드러냈다.

올 7월부터 1365를 통해 청소년도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방학을 맞이하여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화성시청소년자원봉사단과 함께 지난 8월, 나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사전교육이 끝난 후 운동장 청소, 강아

지 산책 및 놀이 활동 등 돌봄 봉사를 진행했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단원 A씨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강아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견사에 갇혀 있는 수많은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유기견의 안타까운 실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다면, 꼭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다.”며 봉사활동 소감을 밝혔다.

유기견에게는 새 희망을,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는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는 2013년 개소 후 1,981마리에 달하는 유기견과 새 가족을 연결했다.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와 같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김현철 나눔센터장은 “말 그대로 반려, 같은 가족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다. 항상 내 곁에서 반겨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며 유기 동물도 언제든지 반려동물로써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문 | 사 | 회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오명

경제 성장과 자살인구의 상관관계

대한민국에서는 40분에 한 명, 하루에 38명,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 표준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다. 국내 사망 원인에서 자살은 5위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으며 경제 성장률 연 12%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현재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인 166조 8천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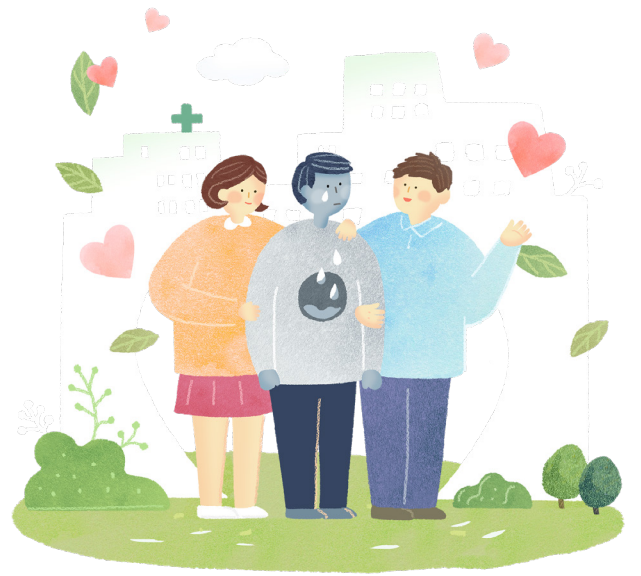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로 정의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얻게 되건 인간은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다. 즉 경제가 발전해 국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진다고 해도 행복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대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 당시에도 불행한 일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현재보다 더욱이 풍요롭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지난간 시절은 행복하게 기억되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

기 때문이다. 오늘날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은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 누구나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평소 월급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월급이 인상되어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있다. 즉,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에 비해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서 35,373달러까지 300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지난 60년 동안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 우울 척도는 수직 상승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준 변화, 경쟁 사회의 폐해로 획일화된 성공, 남들의 인정을 꾀하는 한국 사회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비껴갈 수 없는 국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9월 10일 수많은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잘 관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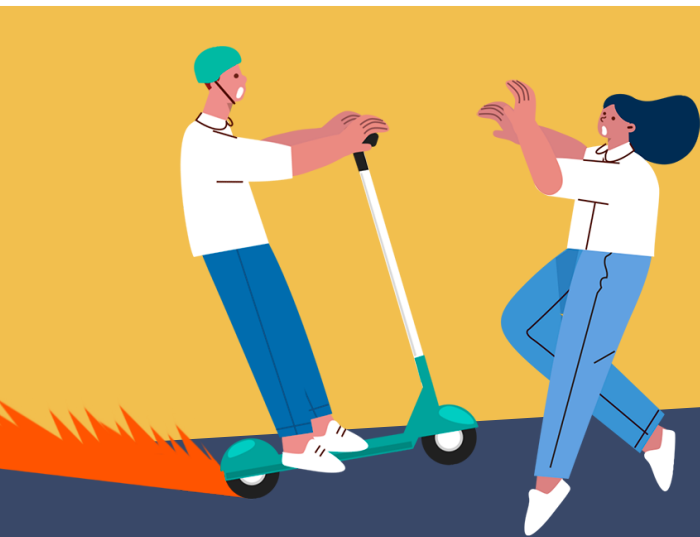


면 예방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한다. 대표적인 자살 신호가 온라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한다는 점이다.

뇌과학 박사 장동선 박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태도는 뇌를 변화시킨다.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이상한 거고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면 누구에게든 털어놓으며 나의 슬픔과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들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사회가 이스털린의 역설을 부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의 그림자, 13년째 이어져오는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또한 우리나라처럼 10년 만에 자살률이 10% 증가한 나라는 없었다며,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 지원과 심리치료 활성화의 중요성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 청소년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청소년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가 없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재미나 편리함만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하여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면허 소지자만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무면허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이며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된 10대는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5건으로 폭증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승차정원을 엄수하여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1명,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다. 하지만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은 임대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빌린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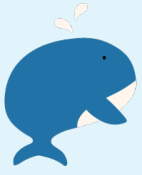
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킥보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 혹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가정에서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포천에 위치한 동남고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학생들이 강화된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강화된 규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준법정신을 올린다면,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홍서준 기자

🎨 | 사 회



고래의 해방을 위한 항해

2022년 여름 ENA에서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로 인해 고래라는 포유동물이 화제가 됐다. 드라마에서 언급된 남방큰돌고래는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으로 5~15마리씩 무리 지어 생활한다. 제주 연안에도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동물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 제돌이는 동물원에 갇혀 있다가 바다로 들어간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는 제주 퍼시픽랜드에,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에 갇혀 돌고래 쇼를 하고 있었다.

퍼시픽 랜드에선 불법으로 포획한 제주도에 살던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데려왔다. 그중엔 춘삼이와 삼팔이 복순이, 몰범 두 마리와 맞바꾸진 서울대공원 제돌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류한 돌고래는 다 죽는다는 오해가 있다. 이미 수족관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방류해 봤자 폐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방류한 7마리 중 5마리는 야생적응에 성공하여 새끼까지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멸종 위기인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BBC,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해외 유명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올만큼 세계적으로 돌고래 방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겨레 남종영 기사는 2012년 편집회의에서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돌고래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이는 해외 언론을 통틀어 돌고래가 주요 일간지 톱뉴스를 장식한 전례가 거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선언하였다. 돌고래를 방류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남방큰돌고래는 세계 최초였다.

이 밖에도 핫핑크 돌핀스의 환경운동가 황현진 대표의 제주 퍼시픽랜드 앞에서의 돌고래 해방 1인 시위,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의 돌고래 해방을 위한 모금 운동 등 다양한 사람들의 돌고래 방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러한 노력으로 2012년 퍼시픽랜드는 돌고래 불법 포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돌고래 몰수형이 확정되어 춘삼이, 복순이, 삼팔이, 제돌이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돌고래가 해방될 수 있게 되자 최재천 교수는 고래들이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도와주었고, 서울시에서 준 예산과 모금으로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보내주었다.

2013년에 돌고래 몰수형이 확정되었지만 비봉이는 너무 오래전에 잡힌 돌고래라며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었다. 때문에 제주 퍼시픽랜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비봉이는 17년째 수족관에 갇혀 돌고래 쇼를 하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최근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일, 방송 중인 인기 드라마 우영우를 언급하며 비봉이 방류 이후에도 수족관에서 전시되는 고래들을 순차적으로 자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양 동물 복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아직까지도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돌고래들이 있다. 다시 바다에 돌아갈 수 있게 돌고래 해방 시위를 참여하거나, 돌고래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돌고래 해방을 위한 영상 제작 캠페인 활동들이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기 드라마로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것은 너무 감사한 현상이다. 이런 관심이 단기적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남아있는 모든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규민 기자

🎨 | 환 경

오산천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과 오산시를 거쳐 평택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오산시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오산천'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화성시 오산천변은 동탄 신도시 조성 당시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오산천변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수많은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원이자 산책로로써 여러 가지 축제와 힐링 스폿들로 화성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오산천은 산업화된 도시와 기업들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로 인해 수질이 5급수까지 떨어졌다. 떨어진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 오산시는 2010년 '오산천 장기발전 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선정되어 8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류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여러 도시를 흐르는 하천이기에 2013년 4지역(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국회의원·시장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힘을 합쳤으며, 2011년 지역사회인민·관 기업 25개 단체가 힘을 모아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도 정화활동, 하천 아카데미 교육 진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산천은 수질이 다시 2급수로 상승했고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우수 하천으로 연속 선정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산천은 각양각색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 생태계는 여러 동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태계 상위층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삵, 물총새 등이 있으며, 생태계 하위층에는 피라미, 모래무지를 비롯한 여러 물고기와 곤충, 다양한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달과 같은

동탄의 허파, 오산천

【수달과 함께하는 오산천】



상위 포식자들은 대부분 인위적인 복원이 아닌 자연적으로 오산천에 들어와 살고 있다.

오산천의 매력은 다양하며, 계절마다 특색이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사계절 중 봄과 가을에 오산천의 정취와 매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에 오산천을 따라 반석산 둘레길을 산책하다 보면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진풍경을 연출하여 오산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산천의 아름다운 점은, 시민의 주도로 복원된 생태하천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오산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와 생태계 복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함께 오산천의 생태계를 되돌리는 데 많은 영향을 줬다.

또한 오산천에는, 수많은 연꽃들로 이루어진 '오산천 연꽃단지'와 각종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맑음터 공

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자전거 도로'와 봄과 가을에 수많은 꽃들이 반겨주는 '산책로', '야생화 정원 생태복원지' 그리고 오산천 뷰를 즐길수 있는 카페 '더바링' 등 여러 힐링 스폿들과 '오산천 두바퀴 축제', '꿈꾸는 오산' 등 여러가지 축제들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조금의 운만 있다면 오산천에 사는 평소엔 보기힘든 동물들도 볼 수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육심준 기자



≡ | 환 경

그린뉴스 담당자
박지훈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이 들려주는 화성시 제로웨이스트숍 이야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그린뉴스프로젝트 '그린마스터(Mars-ter)'

'그린(Green) + 마스터(통달하다, 주인 mars(화성)+ter)'

2022년 5월,
환경을 생각하는 화성시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모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된 '삼미천 활성화'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경계에 있는 '삼미천'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과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하천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화성시 제로웨이스트 활성화는
화성시의 '그린포인트' 제도를 알리기 위해
탄소중립 브이로그를 제작하였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화성시의 제로웨이스트숍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화성시의 제로웨이스트숍 3곳(동탄, 동탄2, 향남)의 운영자를
만나기 위해 질문지를 사전 작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된 제로웨이스트숍 운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느낀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고자 한다.



·함께한 그린마스터·

이름	소속	구매물품
이정운	봉담중	아끼링(열쇠고리)
박시은	봉담중	리크레용
박수민	봉담중	실리콘주걱
김가림	석우중	실리콘컵
이예원	석우중	실리콘컵
엄다은	수현중	코끼리용가노트
박혜인	수현중	밀크티 베이스



ALL바른상점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563 리츠스퀘어 113호

방문일: 2022. 8. 12.(금)

**Q. 어떻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게를
차리게 되셨나요?**

A. 평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3년 전
총선에서 코로나로 수많은 비닐장갑이 낭비되는 것을 보
고 충격을 받았다.

Q. 제로웨이스트숍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쓰레기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생활용품에 대체할 수
있지만 인터넷쇼핑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렵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무
엇인가요?**

A.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래도 실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뿌듯하고 가게를 개업해서 경험을 공유
하고 싶었다. 평소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Q. 제로웨이스트숍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특별한 선
정 기준이 있나요? 추천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A.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본 물건을 진열했다. 탄

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국내생산품을 판매하고 유기농
식품과 더불어 비싸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
고 있다.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빨아쓰는 화장솜을 추천한
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제품이다.

**Q.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어
떠한가요?**

A. 제로웨이스트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선물
했더니 천천히 주변인들이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사용하
게 되었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면서 이 점은 보완하고
싶다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환경교육이 병행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다. 교육
활동이 수월할 수 있게 교육장소가 마련되면 좋겠다.

Q. 장사가 잘 되나요?

A. 처음엔 수입이 거의 없었다. 가족들의 도움이 컸고 손
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
각으로 운영 중이다.

·제로웨이스트 물품 사용 후기·

봉담중학교 3학년 박수민
실리콘 알뜰주걱-3,500원

베이킹을 자주 하는데 사용하던 주걱과
큰 차이가 없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사용감의 차이는 없으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환경에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이 주걱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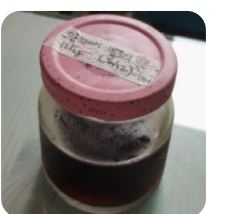
봉담중학교 3학년 이정운
아끼링(열쇠고리)-9,000원

한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
용했다는 점이 가장 맘에 들었습니다. 여러모
로 쓸모 있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업사
이클링(upcycling) 제품들을 모두가 아니더라
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중학교 1학년 박혜인
밀크티 베이스-금액 미확인

밀크티를 처음 마셔보는데 내 취향은 아니었
다. 제로웨이스트랑 밀크티와 무슨 관계일까
고민해보았는데 '리필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플
라스틱용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의 생
각을 해보았다.





다시봄상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 3512동

방문일: 2022. 8. 16.(화)

·함께한 그린마스터·

이름	소속	구매물품
민은새	반송중	천연비누망
박정은	반송중	광목천후대용파우치
목정윤	석우중	구강용품세트
이상민	석우중	고체치약

Q. 어떻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게를 차리게 되셨나요?

A. 기업의 환경교육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사회 변화로 위기의식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Q. 제로웨이스트숍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A. 건강에 좋고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주변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하지만 비싸다는 인식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제한적이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주변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A.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의 SNS 홍보를 통해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Q. 어떻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게를 차리게 되셨나요?

A. 동물과 자연을 좋아했고, 직접 물품을 사용해 보니 물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고자 가게를 개업했다.

Q. 제로웨이스트숍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A.숍을 운영하면 생필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혼자 운영하다 보니 힘들고 바쁜 느낌이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주변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A. 접근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방문하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고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Q. 제로웨이스트숍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추천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A.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구강제품과 같은 손쉽게 사용 가능한 물건을 진열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Q.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다. 시작할 때,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70%의 찬성과 30%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면서 이 점은 보완하고 싶다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홍보·마케팅을 활용하여 판로(유통)의 개척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SNS를 통한 홍보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싶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A. 교육 진행 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청중의 반응과, 관심을 유도했을 때와 환경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들었을 때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Q. 방문자나 수입은 어떠한가요?

A. 주로 외부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5명 내외 방문하고 계신다. 매출은 기업을 통해 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장터를 활용한 사례 또한 있다.

Q. 제로웨이스트숍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A. 우선 환경에 이로워야 하고 화학물질을 최소화한 제품을 진열한다. 국내 제품을 사용하여 탄소발자국 감소와 공정무역을 우선하였다.

Q.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처음 개업할 때는 "항상 앞서가려고만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알리고 있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면서 이 점은 보완하고 싶다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환경보호에 필요한 활동이므로 운영 시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지역사회에 많은 상점들이 생길 것 같다.

Q.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A.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받고 있다.

Q. 추천해 주실만한 물건이 있다면, 직접 만드는 물건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추천 제품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누 관련 제품을 처음 써보는 게 좋고 지금 만드는 제품은 없지만 행주 등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

·제로웨이스트 물품 사용 후기·

석우중학교 1학년 목정윤 구강용품세트-10,000원

고체인 치약이 액체 치약처럼 거품을 내는 것이 신기해서 양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매일 하는 행동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대나무 칫솔은 생각보다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해 다시 구매하고 싶다.



석우중학교 1학년 목정윤 코코넛 수세미-2,000원

코코넛 겹질 부분이 거칠어서 깨끗이 씻을 수 있었다. 거품도 잘 나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겹질 부분이 잘 헤지기도 하고, 가시처럼 찢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환경을 지킨다는 생각에 만족했다.



반송중학교 3학년 민은새 천연비누망-3,000원

재질 특성상 먼지가 조금 묻어 나와 아쉬웠다. 하지만, 몇 번 탈탈 털어내니 괜찮아져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비누를 넣고 물을 조금만 묻혀도 거품이 충분히 나와서 편리했다.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이 시중에 파는 플라스틱 비누망보단 이러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로 제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한 그린마스터·

이름	소속	구매물품
이에원	석우중	빨대, 밀랍백
정소운	능동중	친환경나무컵

우미상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 22-3 102호

방문일: 2022. 8. 17.(수)

·제로웨이스트 물품 사용 후기·

석우중학교 1학년 이에원 빨대-3,000원, 밀랍백-3,500원

빨대는 들고 다닐 때 먼지가 붙어서 불편했지만 여러 번 쓰고 씻기가 편해서 좋았고, 밀랍 백은 음식이나 간식을 들고 다니기 편하고 물품의 촉감이 좋고 보관이 잘 되었다. 두 제품 모두 편하게 오래 쓸 수 있고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게 되어 좋았다.



능동중학교 1학년 정소운 CXP소재나무컵-4,200원

CXP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다회용 컵이다. 일반 컵처럼 음료를 담을 수 있다. 매우 평범하지만 나무로 되어있어서 설거지 후 바로 헹구서 말려야 하는 점이 몹시 번거로웠다.



금 | 경 제

다시 시작된 금리인상

- 금리는 왜 올리는 걸까? -



지난 11월 3일 기준금리를 0.75% 더 올린다고 FOMC가 발표했다.

FOMC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로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이사회(FED)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지역 연방준비제도와 의 협의하에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최근 일명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이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75% 인상을 일컫는 말이다. 직전 대비 0.75% 인상으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여파로 코스피 지수는 작년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다.

2021년 평균 0%였던 미국 금리는 이제 4%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일곱 차례 기준

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다. 이를 양적완화라 하는데 양적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늘려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이 풀린 돈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고,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 이자가 올라 은행 예금액이 많아지고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걸 유동성 감소라 하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주식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대출을 받은 가계는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 기업이익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를 막고자 풀었던 돈이 다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단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눈치를 보며 금리를 인상 하고 있는 중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업과 가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3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성의현 기자

NFT가 뭐길래? 785억 원이 나 돼?

「NFT,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다」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인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소통 공간이다. 쉽게 말해서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뜻한다.

이것은 그림·영상과 같은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NFT 안에 담아 디지털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디지털 형태를 갖춘 암호화 자산이라는 것이다.

NFT가 사용되는 사례로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이 2007년부터 13년 넘게 만든 5천 개 이미지의 모자이크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days)'이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한화 약 785억 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NFT가 적용된 그림으로써 높은 금액으로 팔렸다. 13년 동안 그림을 5천 개의 이미지로 만든 모자이크는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NFT는 출처와 소유자 정보 등의 데이터 변조가 어려워 복제품으로 인해 가치가 손상되지 않으므로 유일성이 보장된다. 또한 고유의 정보가 기록돼 출처, 발행시간, 소

유자 내역 및 기타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 보장돼 추적하기 쉽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 자산 등에 블록체인으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FT가 붙은 디지털 자산들은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며 타인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NFT로 중복해 만든다고 해도 기존의 NFT와는 다른 NFT를 붙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NFT로 생성된 진품과 구별된다.

NFT의 작용은 다양하며 예술 작품 거래뿐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 '더샌드박스', 'Battle of Guardians' 등의 게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NFT를 사용하면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른 단점은 첫째, 환경문제이다. 이 NFT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의 양은 상당히 많다. 2022년 3월 5일 기준으로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는 거래 약 2천만 건에 탄소 배출량이 5억 5000만kg, 또 다른 NFT 거래소 라리블(Rarible)은 약 180만 건에 2770만kg,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는 약 15만 건에 238만kg의 탄소를 배출했다. 즉, NFT를 생성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대중의 낮은 이해도에 의한 각종 사기 사건과 같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 어떤 회사에 따르면 오픈씨의 회사의 이메일을 사칭한 피싱으로 사용자 32명이 NFT를 도난당했다. 이처럼 메타버스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는 기존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활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부터 메타버스와 연계된 가상 자산 NFT를 탈취하거나 침해해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보고서에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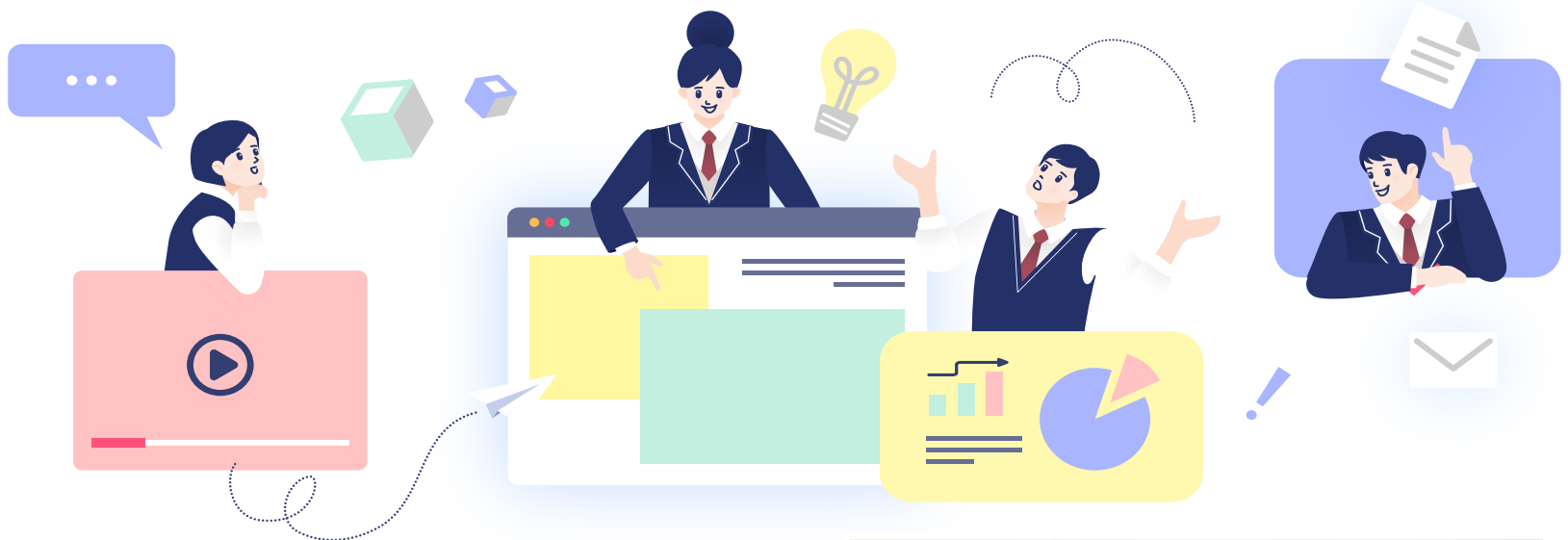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NFT 발행사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원저작자와의 이용허락 및 저작권 양도 등 사전 협의를 통해 표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랑 기자



청소년들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새 미래

화성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2022년 11월 12일 제4회 화성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주관했으며, 화성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함께하는 화성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작된 대회이다. 이 대회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더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자리로 총 8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팀인 '푸른점'(동탄 국제고)은 교내 종이팩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수수수연'팀은 실용적인 청소년 경제·금융 프로그램 실시를 바랐고, 세 번째 팀 '반역자'(반송고의 역사를 써내려갈 자)는 청소년 비만과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 매점 운영을 제안했다. 네 번째 팀인 'BBC'(병점고 방송부)는 미디어 센터 개설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 연합 운영 및 미디어 기기 공유에 소리 높였다. 다섯 번째 팀 '청소년 오지라퍼'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전동 킥보드 사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예원(비봉고등학교) 학생은 건강한 화성시 청소년 식습관 형성을 위해 급식 개선과 식습관 교육을 추진하고자 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놀자'(초6) 팀은 최연소 참가팀으로 무장에 통합놀이시설 개발에 관한 화성시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은(북단대) 학생은 공유 자전거를 도입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앞세웠다.

대회는 1부 발표와 중간 쉬는 시간, 2부 발표, 시상식 및 폐회로 일정이 구성됐다. 각 팀 발표 후엔 심사위원들과 청소년 평가단 총 56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청소년 평가단 투표 30%, 심사위원 심사 70%를 반영해 우승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접수된 18개 팀 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한 8개 팀은 워크숍에 참가해 전문가로부터 발표 자료 준비에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포함한 정책 제안 컨설팅을 받은 후 본선에 올랐다. 덕분에 본선 진출 청소년들 모두 문제 배경과 실천 방안, 보완할 점 등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무대에 섰다.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는 쉽게 지나쳐 가는 화성시 내에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을 상기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 만약 이를 보완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고민해 볼 기회가 됐다.

대상은 'BBC'팀으로 미디어 교육의 개선과 시설 설립을 주장한 청소년들이었다. 조원은 배지원, 정재원, 이승민으로 현재 병점 고등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다.

BBC팀은 현재 학교 방송부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미디어 센터 설립 등 미디어 기기 제공 정책을 떠올



렸다고 한다. 미디어 기기를 제공받음으로써 방송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학교가 아닌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미디어인 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 제작의 기본 지식을 갖춘 크리에이터 강사를 초청해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상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해결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BBC'는 대회에 참가한 다른 팀들의 의견도 참신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BBC' 이승민 학생이 말하길 '푸른점' 팀의 블루박스 아이디어는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교 내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올바른 종이팩 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 같이 놀자'의 무장에 통합 놀이터 개설 아이디어를 초등학교생이 생각해낸 것이 대단하다고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본선에 진출한 우수한 정책들은 정책제안서로 발간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기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은 "전국의 청소년들을 보는 입장에서 화성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수준 높아 놀랐다. 같이 심사에 참여한 화성시청은 물론 화성시의회, 화성오산교육지원청까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화성시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처럼 화성시청소년정책대회를 통해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고, 제도의 보완할 점과 개선할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등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향후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진재 기자

홍보

화성시청소년수련관

2023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모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모집대상 | 관내 9세~24세 청소년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주요활동 | #모니터링 #역량강화교육 #기관장간담회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의 | 031-267-8856

청소년기자단

- 모집대상 | 관내 14세~19세 청소년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주요활동 | #취재활동 #신문발행 #기사작성
#기자교육 #견학활동
- 문의 | 031-267-8857

청소년자원봉사단

- 모집대상 | 관내 14세~19세 청소년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주요활동 | #기획회의 #소양교육
#지역사회 자원봉사
- 문의 | 031-267-8852

청소년홍보단

- 모집대상 | 관내 14세~19세 청소년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주요활동 | #홍보 전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 문의 | 031-267-8847

청소년동아리

- 모집대상 | 관내 14세~19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집인원 | 15개 동아리
- 주요활동 | #동아리지원 #연습실대관
#축제공연참가 #재능기부
- 문의 | 031-267-8855

선발일정



신청서 접수

12. 26.(월)
~ 1. 27.(금)

2차 면접심사

2. 11.(토)

최종합격자 발표

2월 중 예정

자치회 통합 발대식

2. 25.(토) 예정

자치회별 활동 시작!

그린나래 27호

- 발행기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발행인 박찬열
- 참삭지도 리버럴미디어 공소리 기자 / 논술지도자 김사랑

화성시청소년기자단 14기

이채은(나루고1), 김규민(이산고1), 김세빈(방교중3),
양진재(능동중2), 윤관(능동중2), 이지민(석우중2),
장예원(반송중2), 김민아(와우중1), 김세랑(방교중1),
홍서준(동탄목동중1), 성의현(동탄목동중1), 육심준(한백중1)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http://unicenter.hswf.or.kr/>